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헌 정

2017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이 헌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이헌정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 문 초 록>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이 헌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제주지역에 위치한 5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22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한 4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해 정은희(1992)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검사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갈등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태도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탄력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에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심리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심리적 독립 ····· 6

2. 진로태도성숙 ····· 8

3. 자아탄력성 ····· 10

4. 심리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 13

(1)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 13

(2)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 15

(3)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 16

Ⅲ. 연구방법 ····· 19

1. 연구대상 ····· 19

2. 측정도구 ····· 20

(1) 심리적 독립 척도 ····· 20

(2) 진로태도성숙 척도 ····· 21

(3) 자아탄력성 척도 ····· 21

3. 자료 분석 ····· 23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24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24

2. 심리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 2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대학생의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27
4. 대학생의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29

Ⅴ. 논의 ····· 32
1. 결과 및 의의 ····· 32
2. 제한점 및 제언 ····· 36

Ⅵ. 참고문헌 ····· 38

Abstract ····· 46

부록(설문지) ····· 4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19
표Ⅲ-2. 심리적 독립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0
표Ⅲ-3.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1
표Ⅲ-4.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2
표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 25
표Ⅳ-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 26
표Ⅳ-3.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27
표Ⅳ-4.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2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모형 ····· 5
그림 Ⅳ-1.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28
그림 Ⅳ-2.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3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진로활동을 경험해 보고,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탐색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임수진, 2015). 하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은 수동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대학 입학 과정에서 진로에 관한 충분한 생각과 고민 없이 성적에 맞추어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대학 입학 후 전공 부적응을 비롯한 진로와 직업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유순화, 강승희, 윤경미, 2009). 따라서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해 취업이나 향후 진로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진로탐색 및 진로 준비 수준의 정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64.4%로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이렇게 취업난이 이어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대학원 진학과 유학 등 자신의 전공분야를 계속 공부하면서 취업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졸업을 늦추며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은 2017년 2월 69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3천명이 증가하였다(SBS, 2017. 2.16). 이와 같이 대학 졸업 노동력의 증가와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이현진, 2009). 따라서 대학생시기에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발달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정체감, 진로사고,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 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이루어져왔다(김수임, 김창대, 2009). 그 중 진로발달의 핵심적 요소이자 궁극적 목표가 되는 개념이 바로 진로성숙이다(Super, 1984). 진로성숙의 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념 중 인지적인 면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없는 반면, 정의적인 면인 태도는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을 설명하는 가장 유용한 개념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Savickas, 1995; 이기학, 1997). 따라서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발달정도로 설명될 수 있으며(Crites, 1971),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신 및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정임, 2013).

이러한 진로발달 및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중 가족의 영향은 중요한 맥락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Osipow, 1983). 특히 가족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관계, 즉 부모로부터의 독립정도가 청소년 또는 초기 성인기의 삶과 직업적 탐색에 영향을 줄 수 있다(송영주, 2001). 이와 같이 청년기 동안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심리적 독립은(Havighurst, 1968)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과제의 성취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더욱 중요하다(양진희, 2007).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의 개별적인 자유로움을 얻는 심리적 독립(Josselson, 1988; Rice, 1992)의 추구는 대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 나가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김정애, 1998; 안윤정, 2010; 이내은, 2002),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진로태도성숙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매우 중요함을 보고한 연구들(서우석, 1994; 허유미, 2007)이 있다. 이외에 박윤희(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이현경(2007)은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정서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다. 또한 강정임(2013)은 갈등적 독립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수인(2006)은 대학생의 경우 갈등적 독립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와 같이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독립 전체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것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각각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거나(박윤희, 2009; 이현경, 2007), 하위요인 중 갈등적 독립만을 측정하여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음(강정임, 2013; 최수인, 2006)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독립을 전체로 연구하기 보다는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강정은, 2008)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심리적 독립을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진로태도성숙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문제에 직면해 있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능성을 높여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개인의 진로발달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이유민, 2014). 이러한 개인의 성공적인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협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나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아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이 등장하였다(심지연, 2013).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반응하여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말한다(klohnen, 1996). 즉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대처해 나가는 적응능력이며, 개인적·인지적·사회적 영역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Block 등 1988). 따라서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자아탄력성은 대학생 시기에 다양한 진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 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효과적인 진로 준비를 도와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경자, 2007).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속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라고 할 수 있다(Masten, 2001).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롭거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불안수준이 낮으며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상황에 대처해 나간다(박원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11).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김미화, 2003). 따라서 진로문제에 직면해 있는 대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시키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으로서 진로선택과 결정을 위한 진로태도성숙의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허숙영, 2012).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경선과 남현우(2011)는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강영미(2008), 강정임(2013)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허숙영(2012)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발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건강히 적응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송순, 박효인, 2006). 이에 따라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지연(2013)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갈등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김애경(2014)은 갈등적 독립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진로문제와 취업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대학생들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로태도성숙을 이루는 데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알아보고,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 진로태도성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로상담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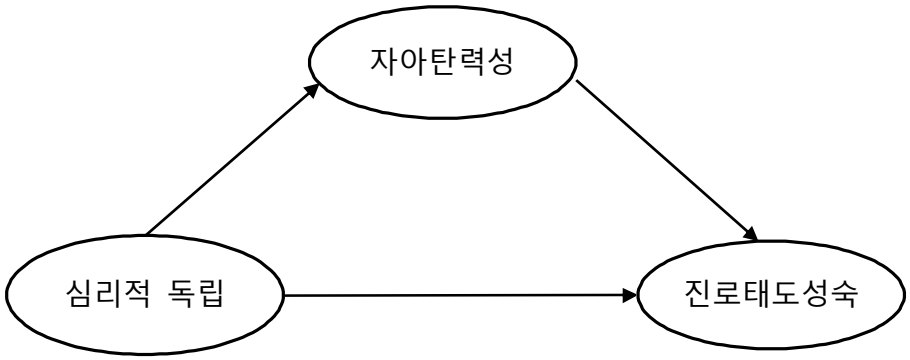
가설 1-1. 대학생이 지각한 정서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이 지각한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3. 대학생이 지각한 기능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4. 대학생이 지각한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모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독립 (Psychological Separation)

청년기 동안 독립된 성인으로써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스스로의 능력에 달려있으며, 그리고 나서야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성인으로서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송현아, 2010). 특히, 대학생 시기는 Erikson(1979)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전예지, 이재림, 2014).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자유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Josselson, 1988). 즉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후기 청소년기 동안 성취해야 될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로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이지인, 2007).

심리적 독립은 정신분석적 이론에서 발달한 것으로 Mahler 등(1975)은 유아가 어머니와의 공생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자각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덜 의존하게 되어 자립하게 되는 과정을 분리-개별화 과정(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이라고 하였다(송현아, 2010). Blos(1979)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분리-개별화 과정과 구별하여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분리-개별화 과정을 제 2의 개별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유아기적 대인관계로부터 독립하려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과의 확고한 경계를 통해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부모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개별화 한다고 하였다(전예지, 이재림, 2014). 따라서 청년기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의존성과 동일시에서 벗어나 자율과 독립의 성공적인 성취를 통해 청년기의 주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offman, 1984),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애정관계 속에서 독립을 이루어 자아를 발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Jang, 2002),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획득해 나가는 개별화 과정이라 할 것이다(정은희, 1993). 따라서 심리적 독립이란 대학생 시기를 비롯한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안정된 유대감을 유지하면서도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Haffman(1984)은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가 의존했던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변화의 과정과 청년기에 부모의 과도한 보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연결시켜 심리적 독립의 개념을 구체화 했으며(이창숙, 2011),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개발하였다. 그는 심리적 독립을 다차원적인 구조로 보고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의 네 가지 차원의 하위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첫째, 정서적 독립은 부모로부터의 과도한 인정, 친밀감, 정서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갈등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불만감, 책임감,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능적 독립은 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조언을 받지 않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일을 스스로 결정,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태도적 독립은 부모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을 지니는 것으로 자신을 부모와 구별되는 개체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4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강정은(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중에서 갈등적 독립이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태도적 독립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권용호(2002)의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지각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중 태도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과 부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윤희(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중 정서적 독립은 진로태도성숙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은 진로태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심리적 독립과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의 네 요인은 대상에 따라서 또는 관련 변인에 따라서 각 요인별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리적 독립에 관한 연구를 할 때에는 심리적 독립을 네 가지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함을 나타낸다(강정은,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을 네 가지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진로태도성숙 (Career Attitude Maturity)

진로성숙은 진로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성숙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이창숙, 2011). Super(1955)는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의 진로행동을 비교함으로써 한 개인의 진로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자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또한 그는 진로성숙도란 연속적인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진로발달 단계에서 주어진 발달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태도와 인지적인 준비도로 정의하였다. 즉 진로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이 속한 연령층에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남수현, 2009).

Crites(1971)는 Super가 제시한 진로성숙의 개념을 수정하고 재정의 하였는데, 진로성숙이란 진로선택 과정 시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게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남수현, 2009). 이러한 진로성숙은 인지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인 면은 진로결정기술로, 정의적인 면은 진로태도로 설명하고 있다(강원덕, 2009). 또한 그는 진로태도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흥미나 능력과는 구별되는 진로에 관한 반응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성숙의 개념 중 이기학(1997)은 인지적인 면은 현실적으로 한정된 시간동안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없지만, 정의적인 면인 태도는 객관적으로 측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개념은 태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진로태도성숙을 김충기(1986)는 직업발달의 관점에서 개인이 직업적 가치,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서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판단력과 행동이 생기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보았다. 김희진(2001)은 진로태도성숙을 한 개인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전 생애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사회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과정이라 하였다. 최보람(2008)은 한 개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진로행동이 그가 속한 연령층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진로행동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기학(1997)은 진로태도성숙을 개인이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확신 및 수행 정도라 하였으며, 진로발달의 핵심적인 변인으로 보았다. 이상의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태도성숙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발달적 과정에서 자아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학(1997)은 Crites(1978)가 연구한 진로성숙도검사(CMI)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는 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된 자료를 통해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가지 하위차원으로 진로태도성숙의 구성요인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맹자, 2011).

첫째, 결정성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확고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직업 및 진로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가를 말한다. 결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둘째, 목적성은 개인이 진로선택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추구하고자 하는가를 알아보는 요인으로 자신의 욕구를 현실과 타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목적성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보상과 같은 현실적인 욕구보다는 자기개발, 사회에 봉사, 대인관계 등을 더욱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용될 수 있는 내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셋째, 확신성은 자신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결정한 진로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미래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준비성은 진로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자기이해, 계획 및 준비수준,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사결정능력, 정보수집능력 등의 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준비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현명한 선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능력 등을 많이 갖추고 있다.

다섯째,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를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성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진로태도성숙의 구성요인을 5가지로 설정하고 이기학(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가지 요인에 대한 진로태도성숙정도를 측정하였다.

3. 자아탄력성 (Ego-Resilience)

어떤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여 이전의 적응 수준을 찾기가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이전의 적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수준을 되찾아 성숙해지기도 한다(박주언, 2007). 이러한 차이는 탄력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탄력성(resilience)란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하나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한다(김주환, 2011; Garmezy, 1993). 최근 들어 스트레스나 어려움 또는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서와 행동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허숙영, 2012).

Block & Block(1980)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일시적인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이전 상황의 자아통제의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였다(강정임, 2013). 이는 자아탄력성이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홍은숙, 2006). 또한 Klohmen(1996)은 자아탄력성을 한 개인이 내적, 외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저항하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개인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Block &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이란 당면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바꿀 수 있는 자기 동기조절 능력과 인지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자아통제정도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개인의 메타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감정적이거나 동기적인 충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어려운 환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개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이정희, 2015).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 기술, 태도, 능력을 밝혀주는 유용한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Block & Block, 1980).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속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이며, 위험요소가 높은 환경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강인하고 탄력 있게 적응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적 보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요소라고 할 수 있다(Lazarus, 2000).

자아탄력성 개념이 일관성 있게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안팎의 일로,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resilience'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용어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했으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강송은, 2017). 국내 연구에서는 회복력(이경희, 2008), 심리적 건강성(이완정, 2002), 탄력성(홍은숙, 2006), 적응유연성(안도희, 김지아, 2007), 회복탄력성(김주환, 2007; 이지혜, 2017)), 자아탄력성(김수정, 2008)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resilience'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환경적 스트레스나 역경을 이겨내고 변화된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할 수 있다(홍영희, 2013). 따라서 이상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여러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지각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메타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구성요인은 개인의 기질, 인지적 능력, 성격적 특성, 대인관계 등의 개인 내적 요인들과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의 외적 요인 등으로 연구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이해리, 조한익,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내적 요인을 포함한 정서적 요인과 사회성을 포괄하는 총체적이면서도 위계적인 개념으로 보고,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을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첫째, 통제성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조절력,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는 충동통제력,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원인분석력으로 이루어져 있다(허숙영, 2013).

둘째, 긍정성이란 긍정적 정서를 키우는 것으로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통제력을 높인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서, 긍정적 정서를 통해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오세진, 2016). 긍정성은 실패나 어려운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낙관성, 행복의 기본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 삶과 주변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김주환, 2011).

셋째, 사회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관계성,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주환, 2011).

또한 김주환(2011)은 이들 3가지 구성요인 중 자아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긍정성이라고 하였으며,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타인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정서를 통해 통제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며 강한 자아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4. 심리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1)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진로발달의 단계에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자율성의 추구로 인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하려는 경향성은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류진영, 2008), 진로태도성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김정애, 1988; 안윤정, 2010),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이기학 외, 2004), 심리적 독립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독립이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서우석, 1994) 등이 있다. 또한 이희영(199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진로성숙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좌태실(2006)에 따르면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태도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내은(2002)이 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을 제외한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이 진로태도성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그중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 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진로태도성숙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부적 상관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박윤희(2009)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낮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주된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으로 정서적 독립은 정적 영향을 갈등적 독립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현경(2007)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중 정서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 관계가 있으며, 태도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강정임(2013)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수인(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영애(2008)는 위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심지연(2013)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진로의식성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있으며, 연구 대상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에 어떤 요인과 진로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 역시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나현,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2)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삶과 직업적 탐색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부모로부터의 독립 정도와 부모와의 상호작용, 사회적지지 등 부모나 동료와의 관계라는 개인외적 요인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김은진, 2001). 또한 앞으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진로효능감, 진로정체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유순화, 2010).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과도한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로를 선택,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에 유용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독립과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은희(1992)는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책임감, 분노 등의 갈등이 없을수록 전체 대학생활에 전반적으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조화진(2005)의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 진 대학생일수록 학업적, 사회적, 개인-정서적, 대학환경에 대해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한혜준(1994)은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특히 태도적 독립,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은 대학생활적응에서 학업문제, 심리적 문제, 교수와의 관계, 전반적인 적응을 도왔고, 태도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의 발달은 학업 문제, 취업과 진로문제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했음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시기에 부모에 대한 과도한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의 발달은 심리적 성숙, 자율성 발달, 적응능력의 발달 등을 촉진할 수 있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것이다(송순, 박효인, 2006).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알 수는 없지만,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발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건강히 적응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선영(2010)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갈등적 독립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심지연(2013)은 대학생이 지각한 갈등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김애경(2014)은 대학생이 지각한 갈등적 독립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선주(2010)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지만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과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 진로발달 변인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고, 연구 결과도 대상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 갈등적 독립만을 사용하여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결과만이 보고되고 있다(김애경, 2014; 심지연,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진로태도성숙은 자신의 진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적성과 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진로문제에 대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등 진로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자아탄력성은 이러한 진로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그 영향을 완충시키거나 적응을 도와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희진, 2001).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역동적인 특성인 자아탄력성은 진로 발달의 준비 정도인 진로태도성숙과 관련성이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성숙 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석구(2005)는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안세영(2008)은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경자(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짐을 밝혔으며, 이혜숙(2007)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의 정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적응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특성화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순화, 강영미, 윤경미(2009)의 연구에서는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의식성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진로의식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과 목적성이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중요 변인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혜정(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아지고, 사회성이 높을수록 진로독립성이 높아지며, 긍정성이 높을수록 진로확신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허숙영(2012)은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었는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이 진로성숙과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진로성숙의 하위요인 중 확신성이 자아탄력성과 가장 큰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심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정현(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수준이 높아지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강정임(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유민(2014)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지혜(2017)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부산, 제주지역에 위치한 5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의 대학생에게 가깝게 설문을 실시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실시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설문은 2016년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시간은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22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하고, 총 49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301명(60.4%), 여학생 197명(39.6%)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0.8%가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153명(30.7%), 2학년 168명(33.7%), 3학년 122명(24.5%), 4학년 55명(11.0%)으로 1,2학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98)

	구분	N(=498)	구성비율(%)
성별	남	301	60.4
	여	197	39.6
학년	1학년	153	30.7
	2학년	168	33.7
	3학년	122	24.5
	4학년	55	11.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측정도구

(1) 심리적 독립 척도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해 Hoffman(1984)이 제작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검사(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도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각각 69문항 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은희(1992)가 번안·수정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26문항을 제외시킨 112문항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각각 56문항을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서적 독립 10문항, 갈등적 독립 20문항, 기능적 독립 13문항, 태도적 독립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응답한 점수는 거꾸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환산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은희(1992)가 측정한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81~.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72~.94로 나타났다.

<표 Ⅲ-2> 심리적 독립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98)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α	
			부	모
정서적 독립	10	1, 3, 10, 15, 24, 32, 38, 42, 44, 48	.73	.72
갈등적 독립	20	2, 5, 6, 7, 11, 14, 18, 20, 21, 25, 28, 29, 33, 34, 37, 39, 43, 47, 49, 55	.84	.84
기능적 독립	13	4, 9, 13, 17, 23, 27, 31, 36, 41, 46, 51, 53, 54	.82	.81
태도적 독립	13	8, 12, 16, 19, 22, 26, 30, 35, 40, 45, 50, 50, 56	.85	.84
전체	56		.94	

* 모두 역채점 문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진로태도성숙 척도

진로태도성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검사(CMI)를 토대로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의 5가지 하위요인은 10개의 결정성 문항과 8개의 목적성 문항, 10개의 확신성 문항, 10개의 준비성 문항, 9개의 독립성 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기학(1997)이 측정한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5~.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75~.90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98)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α
결정성	10	1, 6*, 11, 16*, 21*, 26*, 31, 36, 41*, 45*	.87
목적성	8	2*, 7*, 12*, 17*, 22*, 27*, 32*, 37*,	.78
확신성	10	3*, 8*, 13, 18*, 23, 28*, 33, 38*, 42, 46*	.81
준비성	10	4, 9, 14*, 19, 24, 29, 34, 39, 43, 47	.75
독립성	9	5*, 10*, 15*, 20*, 25*, 30, 35, 40, 44*	.81
전체	47		.90

*는 역채점 문항

(3)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YKRQ-27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집단을 대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반복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이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3개의 하위 영역은 통제성 9문항, 긍정성 9문항, 사회성 9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하위영역은 다시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 등의 9개의 하위영역(각 3문항)으로 나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의 연구에서 측정한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2~.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76~.89로 나타났다.

<표 Ⅲ-4>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98)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α
통제성	9	1, 6, 8, 13, 14, 22, 24, 26, 27*	.76
긍정성	9	2*, 3, 4, 11, 12, 16, 20*, 23, 25	.84
사회성	9	5, 7, 9, 10*, 15, 17, 18*, 19*, 21	.82
전체	27		.89

*는 역채점 문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과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들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 (Sobel, 1982)를 실시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심리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주요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의 전체 평균은 3.13점, 진로태도성숙의 전체 평균은 3.30점, 자아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3.39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갈등적 독립(M=3.42, SD=.48)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정서적 독립(M=2.85, SD=.51)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독립성(M=3.60, SD=.57)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목적성(M=3.06, SD=.58)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긍정성(M=3.62, SD=.58)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사회성(M=3.16, SD=.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탄력성 점수가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점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으로,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야 한다(Kline, 1998). 심리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왜도는 0.04에서 0.68, 첨도는 0.03에서 1.91의 범위로 나타나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N=498)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반응척도
심리적 독립	정서적 독립	2.85	.51	0.30	0.74	1-5
	갈등적 독립	3.42	.48	0.17	-0.06	1-5
	기능적 독립	3.28	.56	0.22	0.03	1-5
	태도적 독립	2.95	.54	0.37	1.91	1-5
	전체	3.13	.36	0.54	1.24	1-5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3.08	.70	0.39	0.16	1-5
	준비성	3.54	.49	-0.16	0.63	1-5
	독립성	3.60	.57	0.37	-0.26	1-5
	목적성	3.06	.58	-0.05	0.20	1-5
	확신성	3.23	.56	0.32	0.41	1-5
	전체	3.30	.39	0.68	0.50	1-5
자아탄력성	통제성	3.37	.48	0.17	0.71	1-5
	긍정성	3.62	.58	0.04	-0.08	1-5
	사회성	3.16	.50	-0.08	0.94	1-5
	전체	3.38	.41	0.21	0.57	1-5

2. 심리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498)

	변인	1-1	1-2	1-3	1-4	2	3
1-1	정서적 독립	1					
1-2	갈등적 독립	.085	1				
1-3	기능적 독립	.655**	.248**	1			
1-4	태도적 독립	.474**	-.067	.447**	1		
2	진로태도성숙	.088	.345**	.267**	-.126**	1	
3	자아탄력성	-.125**	.319**	.021	-.250**	.531**	1

** $p<.01$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과 진로태도성숙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갈등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 상관(r=.345, p<.01)이 나타났다. 또한 기능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 상관(r=.267, p<.01)을 보였으며, 태도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부적 상관(r=-.126, p<.01)을 보였다. 따라서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위변인인 태도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부적 상관(r=-.125, p<.01)을 보였으며, 갈등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r=.319, p<.01)을 보였다. 또한 기능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부적 상관(r=-.250,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서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 상관(r=.531,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정서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고,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기능적 독립과 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탄력성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단계인 매개모형 분석에서는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상관관계가 확인된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3. 갈등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갈등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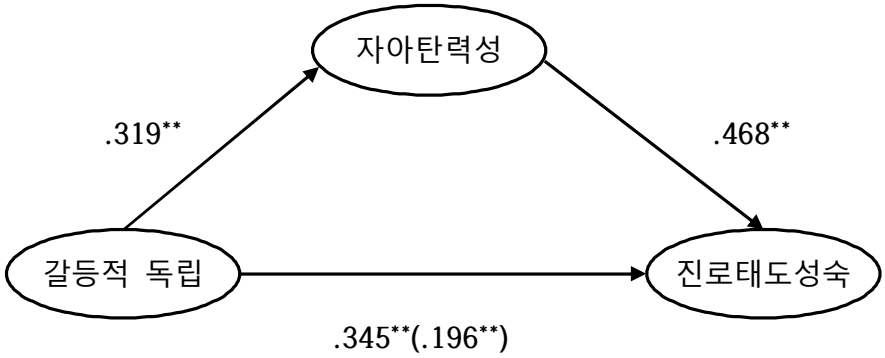
<표Ⅳ-3>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갈등적 독립	자아탄력성	.102	56.117	.275	.037	.319	7.491**
2	갈등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119	67.164	.278	.034	.345	8.195**
3	갈등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316	114.511	.158	.032	.196	4.999**
	자아탄력성				.438	.037	.468	11.945**
Sobel Z 통계량 Z = 6.294***			비표준화 계수 Ba = .275, 표준오차 SEa = .037					
			비표준화 계수 Bb = .438, 표준오차 SEb = .037					

** p<.01, *** p<.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갈등적 독립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319, p<.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Ⅳ-1>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적 독립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345, p<.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갈등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196, p<.01),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68, p<.01). 이 때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2단계 .345에서 3단계 .196으로 그 절대값이 줄어들었고,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자아탄력성은 갈등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 제시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Z점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05수준, 2.58 이상일 경우 p<.01수준, 3.30 이상일 경우 p<.001수준에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294(p<.001)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갈등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Ⅳ-3>.

4. 태도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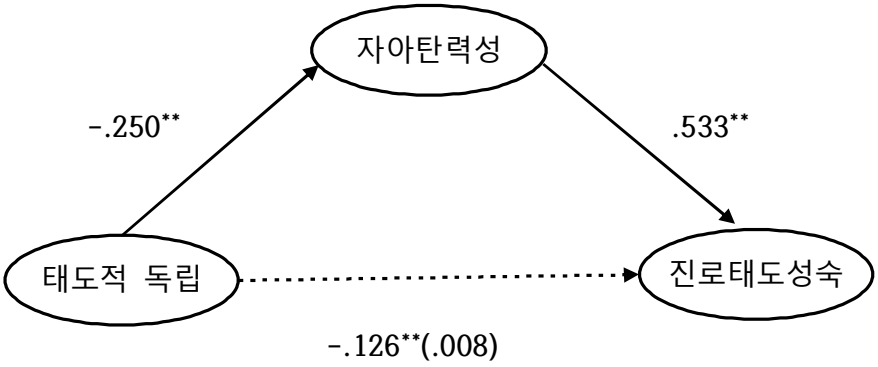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태도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4>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2>와 같다.

<표Ⅳ-4>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태도적 독립	자아탄력성	.062	33.020	-.193	.034	-.250	-5.746**
2	태도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016	7.946	-.091	.032	-.126	-2.819**
3	태도적 독립 자아탄력성	진로태도성숙	.282	97.136	.005 .498	.028 .037	.008 .533	.191 13.543**
Sobel Z 통계량 Z = -5.230***			비표준화 계수 Ba = -.193, 표준오차 SEa = .034 비표준화 계수 Bb = .498, 표준오차 SEb = .037					

** p<.01, *** p<.00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Ⅳ-2>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완전매개효과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태도적 독립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태도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250, p<.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태도적 독립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126, p<.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태도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β=.008),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533, p<.01). 이 때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2단계 .126에서 3단계 .008로 그 절대값이 줄어들었고,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것을 통해 자아탄력성은 태도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 제시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Z점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05수준, 2.58 이상일 경우 p<.01수준, 3.30 이상일 경우 p<.001수준에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5.230(p<.001)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태도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Ⅳ-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논의

1. 결과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 요인인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키는 개인 외적 요인인 심리적 독립과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진로 문제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통한 진로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로상담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들과 진로태도성숙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은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태도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갈등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은 높아지며, 태도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안윤정(2010)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이기학 외, 2004)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 관계가 있으며, 태도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은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이현경(200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강정임(2013)의 연구결과를 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한다. 대학생이 지각한 갈등적 독립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최수인, 2006; 강정임, 2013)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시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죄의식이나 불신, 분노로부터 자유롭고, 부모의 도움 없이 개인적인 일을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자신만의 태도나 신념 및 가치들을 부모에게서 독립시키는 정도가 낮을수록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들과 자아탄력성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정서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은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갈등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기능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서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며,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이선주(2010)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대학생이 지각한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아진다고 보고한 심지연(2013), 김애경(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시기에는 부모로부터의 과도한 인정과 정서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작고, 자신만의 태도나 신념 및 가치들을 부모로부터 독립시키는 정도가 낮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죄의식이나 불신,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주정현(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강정임(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허숙영(2013), 이유민(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심지연(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히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 높을수록 효과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에서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탄력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즉 갈등적 독립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아지지만, 자아탄력성이 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할 경우 진로태도성숙을 높여주는 경향성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죄의식이나 불신,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로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수록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의식과 불신,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로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도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대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에서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즉 태도적 독립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진로태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숙 정도가 높아지지만, 자아탄력성이 이를 매개할 경우 진로태도성숙을 높여주는 경향성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태도나 신념 및 가치들을 독립시키는 정도는 낮지만 진로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부모의 진로에 대한 태도나 신념 및 가치들에 영향을 받지만 진로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매개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정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적 접근을 할 때 개인 외적 변인인 부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보다는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로에 대한 성숙된 태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와의 과도한 의존,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대학생시기에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롭고, 자신만의 태도나 가치 및 신념들을 부모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중요한 발달 과업일 것이다. 하지만 진로문제에 직면한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숙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진로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을 적절히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시시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상담과정에서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태도가 부족할 때 진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상담적 접근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던 심리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 중에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자유롭고 부모의 신념과 가치관 및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로발달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상담 장면에서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진로태도성숙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부산, 제주 지역의 5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이 진로태도성숙과 자아탄력성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부산, 제주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심리적 독립, 진로태도성숙,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개인적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심리적 요인과 방해되는 상황적 요인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관찰법, 본인과의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들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갈등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했고, 정서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은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 전체 및 하위요인들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구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 외에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적인 외적, 내적 변인들과 환경적, 사회적 변인을 포함한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강송은 (2017).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6**(1), 415-438.

강원덕 (2009).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남내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행동에 미치는 영향-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정임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진로태 도성숙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용호 (2002). **실업계 고교생의 심리적 독립 및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화 (200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임, 김창대 (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 연구, 10**(3), 1573-1591.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결식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 9-38.

김애경 (2014).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 과적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진 (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22**, 97-11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정애 (1998). **고등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대인거리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서울: 위즈덤하우스.

김충기 (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배영사.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나선영 (2011). **성인 여성의 부모와의 유대가 불안정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수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진영 (2008). **대학생의 부모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원주 (2011).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긍정 및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윤희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지지와 심리적 독립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언 (2007). 행복: 과학적 개요. **스트레스연구, 15**(3), 187-197.

박현주, 김봉환 (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상담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19-439.

서우석 (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순, 박효인 (2006).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3**(2), 5-25.

송현아 (2010).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맹자 (2010). **대학생의 전공수업 몰입경험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광운대 상담복지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신혜정 (2013).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지연 (2013).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도희, 김지아 (2007).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에 따른 집단별 특성: 대처 전략, 사회적지지, 유능감 및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1), 47-67.

안세영 (2008).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윤정 (2010).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진희 (2007).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석구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의식과 적응유연성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세진 (2016). **마이스터고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나현 (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효능감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순화 (2010).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선, 남현우 (2011).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 논총, 30**, 233-256.

이경희 (2008). 한국인 부정정서의 취약성과 회복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530-531.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 219-255.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0**(1), 167-186.

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전윤경(200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 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2), 53-65.

이내은 (2002).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주 (2010).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기술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완정 (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이유민 (2014).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 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인 (2007). **어머니의 애착경험, 심리적 통제 및 청소년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혜 (2017).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희 (2011).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조절효과. **직업교육연구, 30**(3), 133-146.

이창숙 (2011). **고등학생의 부모진로기대 및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충국 (1998).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 발달과 심리적 독립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해리, 조한익 (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이현경 (2007).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숙 (2008).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학교생활 적응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영 (1999a).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39-259.

임수진 (2015).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한국심리학회지. 12**(3), 349-363.

전예지, 이재림 (2014). 대학생과 미취업 대졸자 청년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119-146.

정영애 (2008). **청소년의 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화진 (2005).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좌태실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정현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경자 (2007).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최보람 (2008).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득수준, 성취동기, 진로태도성숙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수인 (2006).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혜준 (1994).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숙영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유미 (2007).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심리적 독립, 자기주장성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영희 (2013). **사회복지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 연구, 41**(2), 45-46.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Crites, J. O. (197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25-25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rites, J. O. (1978). Career counseling: A review of major approaches. In J. M. White & A. Resnikoff(Eds), *Career counseling.* Monterey, CA: Books/Cole.

Garmezy, N. (1993).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cine, 31,* 104-126.

Havighurst, R. J. (196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nd. New York: David Mckay.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Jang, H. S. (2002). Attachments to par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1),* 101-121.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m thou revisited. In D. K. Lapley, & F. C. Power.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91-108: New York: Spring-Verlag.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resi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67-1079.

Lazarus, R. S. (2000). Toward better research on stress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65-673.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Rice, k. G.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1),* 27-33.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Savickas, M. L. (1995). Current theoretical issues in vocational psycholog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onvergence, divergence, and schism. in W. b. Wtalsh & S. H. Osipow (2nd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s (pp, 1-34), Mahwah, NJ: *Lawrence Eribaum Associates.*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t S, editor. *Sociological Methodology,*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90-312.

Super, D. E. (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Super, D. E., & Nevill, D. D. (1984). Work role salience as a determinant of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255-27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in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Lee Heon Jeo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r : Choi Bo Yeo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if ego-resili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ediates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For this study, survey was conducted by 550 university students of 5 universities who live in Seoul, Busan, Jeju. Total 522 answers were collected, among the collected answers, 498 answers excluding no-response or insincere 24 answe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For study measurement tools, the scale adapted and corrected by Jeong Eun Hui(1992) was utilized for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scale developed by Lee Gi Hak & Han Jong Cheol(1997) and ego-resilience were Youth Korean Resilience Quotient developed by Sin U Yeol & Kim Min Gyu & Kim Ju Hwan(2009).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to know of general data' property, correlation analysis to know of the relation with each variable. Three phases regression analysis was execu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Sobel test was executed to verify the statistical mediating effect.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s.

First, conflictive separation and attitudinal separation in subordinates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ego-resilience were significantly related. In other words, conflictive separa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ego-resilience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attitudinal separa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ego-resilience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Ego-resili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Second, as the result of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partial mediating effect appears both in conflictive separa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ver ego-resilience. In other words, conflictive separation had partially indirect effect rather than directly positive effec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by mediating of ego-resilience .

Third, as the result of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total mediating effect appears both in attitudinal separa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ver ego-resilience. In other words, attitudinal separation had indirect effect rather than directly negative effec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by mediating of ego-resilience.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s of conflictive separation and attitudinal separation in subordinates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by mediating variable of ego-resilience. Accordingly, the result contributes to establish the base data of counseling strategies and program development to enhance the ego-resilience, which is for improving career attitude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complaining of career problems.

Key words :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ego-resilience, mediating effect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렇게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요즘 대학생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응답하시는 데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13조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 이헌정
지도교수 : 최보영
liheon@naver.com

★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처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님과 심리적으로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의 사진을 아버지/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때때로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짐(부담)이 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오래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을 느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친구를 선택할 때 아버지/어머니의 바람은 내게 영향을 미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나는 항상 아버지/어머니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내게 있는 문제 중 대부분은 아버지/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7	나는 아버지/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8	성에 대한 나의 태도는 아버지/어머니와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보통 아버지/어머니에게 부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0	나에게 아버지/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1	나는 아버지/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2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내 생각은 아버지/어머니와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3	나는 종종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아버지/어머니의 도움을 청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4	나는 때때로 아버지/어머니의 꾸지람을 받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5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 외롭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6	남성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버지/어머니와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7	나는 아버지/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마음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9	나의 종교적 신념은 아버지/어머니의 신념과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0	나는 내키지 않지만 아버지/어머니에게 어떤 의무감을 느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1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2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나의 견해는 아버지/어머니와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3	아버지/어머니가 내 용돈을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4	집안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5	종종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좀 더 어른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6	정직에 대한 나의 가치관은 아버지/어머니의 가치관과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7	여행계획을 세울 때 대체로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자문을 구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8	아버지/어머니에게 가끔씩 화가 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9	아버지/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킬 때 하기가 싫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0	'고독'이라는 것에 대해 아버지/어머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1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 아버지/어머니와 상의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2	아버지/어머니가 인정해 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3	아버지/어머니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일 경우에도 아버지/어머니의 생각이 싫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4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지 못할 때 나는 아버지/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5	환경문제에 대하여 나와 아버지/어머니의 태도가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6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물어본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아버지/어머니편이 되도록 조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8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9	나는 사소한 일로 아버지/어머니와 언쟁을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0	나의 생활신조는 아버지/어머니의 것과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1	나는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아버지/어머니의 결정대로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2	나는 내 또래의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어머니와 더 가까운 것 같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3	아버지/어머니는 때때로 나를 당황하게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4	때때로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5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버지/어머니의 생각과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6	나는 방학계획을 짤 때 아버지/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7	나는 때때로 아버지/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8	나는 아버지/어머니의 반응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9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평가할 때면 화가 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0	이성교제에 관하여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1	내가 특별히 옷을 살 경우에 아버지/어머니가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2	안보의식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버지/어머니와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3	나는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아버지/어머니를 찾는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4	내가 아버지/어머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5	아버지/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기분 나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6	'정신적 고통'에 대한 나의 태도는 아버지/어머니와 비슷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1	2	3	4	5
2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4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6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7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1	2	3	4	5
9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1	2	3	4	5
10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11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 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1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15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16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1	2	3	4	5
17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1	2	3	4	5
18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	2	3	4	5
19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1	2	3	4	5
22	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24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는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2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1	2	3	4	5
27	나는 내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직장에 취업 할 것이다.	1	2	3	4	5
28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지 걱정이다.	1	2	3	4	5
29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한다.	1	2	3	4	5
30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1	2	3	4	5
31	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1	2	3	4	5
32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2	3	4	5
33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1	2	3	4	5
34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길 원한다.	1	2	3	4	5
3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1	2	3	4	5
36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1	2	3	4	5
37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1	2	3	4	5
38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5
39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1	2	3	4	5
40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41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1	2	3	4	5
42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	1	2	3	4	5
43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1	2	3	4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4	내 경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1	2	3	4	5
45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46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1	2	3	4	5
47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길 원한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트레스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갖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1	2	3	4	5
6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7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재치있는 농담을 잘 한다.	1	2	3	4	5
10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1	2	3	4	5
11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1	2	3	4	5
12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1	2	3	4	5
13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1	2	3	4	5
14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1	2	3	4	5
15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18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1	2	3	4	5
19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1	2	3	4	5
20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21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1	2	3	4	5
22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1	2	3	4	5
23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24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5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27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	2	3	4	5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